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 강론

### 구호가 아닌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평화를 빕니다!

지난 주 성령강림을 끝으로 50일 간의 부활시기를 지나 다시금 연중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이 무척 덥다가도 어떨 때엔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무쌍할까!’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겨울 무척 추울 때, 세계에서 가장 추운 러시아의 마을은 영하 70도 까지 내려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하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체험해야만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교만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하느님이 베푸시는 은총들을 더 많이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 축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목적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삼위의 표현을 언제 하시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미사 중에, 인생의 시작과 끝에도 우리는 삼위의 신비를 고백하며 삼위의 은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4대 교리라고 할

---

정도로 중요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유치부 친구가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자기 엄마에게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세잎 클로버의 잎에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데 그건 한 명이야. 꽃잎이 세 잎으로 되어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또 엄마가 우리 낳아서 태어났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 누구야? 진짜 딸 맞아? 검사해봐’ 이렇게 해야만 아는 게 아니지? 나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지? (응)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땐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있다고 믿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 믿잖아. 그것처럼 믿는 거야. 이제 좀 알겠지?”

지금껏 제가 해온 설명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똑 부러지는 설명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체험했던 하느님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신앙고백 때에도 성부는 이러한 분, 성자, 성령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신앙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삼위의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앙고백은 나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가 체험한 것을 아무리 고백해본들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질서 정연하게 만든 분이시죠. 그런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창조사업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종살이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분입니다. 즉, 힘 있는 자를 편드는 것은 우리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죽은 이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단죄하는 것 역시 하느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을 하느님처럼 귀하게 제대로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요 벗이자 보호자인 그분을 자주 만나서 나만의 믿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성 카리타스 손성문 사도 요한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며 청소년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영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정성껏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 본기도

†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신명기 4장 32절-34절.39절-40절

**안 내** :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다른 하느님은 없습니다.

**묵 상** :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으로 애쓴 신이 있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 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느님뿐이십니다.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제2독서 : 로마서 8장 14절-17절

**안 내** : 우리는 하느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묵 상** : 하느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종살이에서 해방됩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광을 누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8장 16절-20절

---

**강론** : ‘구호가 아닌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야’(1-2쪽)

**예물준비성가** : 513번 ‘면병과 포도주’

**영성체성가** : 159번 ‘세상의 참된 행복’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당신 아들 성자를 사람으로 보내신 것도,  
영원히 사람들 사이에 머무시고자 성령을 보내신 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과 함께 있고자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침묵>**

나를 부르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온 존재에 당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1,3절)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47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알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천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교구 사제피정

- 일시 : 6월 4일(월) - 6월 8일(금)
- 장소 : 마산 가톨릭교육관

### ■ 여름신앙학교 교사연수

- 일시 : 6월 9일(토) 13:30 - 10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미사 준비
- 회비 : 1인 45,000원
- 신청 : 5월 29일(화)까지 사목국

###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일시 및 장소 : 안동 - 6월 9일, 16일, 23일, 30일, 7월 7일, 14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 함창 - 6월 11일, 18일, 25일, 7월 2일, 9일, 16일 함창 성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신청 : 5월 29일(화)까지 사목국

###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4

- 일시 : 6월 11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 제61차 청소년 성서모임

- 주제 : "너에게 맡기셨다"(사도 27.24)
- 일시 : 7월 27일(금) 13:30-29일(주일) 15:00
- 장소 : 문경 성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중1 ~ 고2, 선착순 110명
- 참가비 : 1인 80,000원
- 준비물 : 성경, 주일 미사 준비, 간편한 옷, 물놀이 옷, 운동화, 필기도구
- 신청 : 5월 29일(월)까지 사목국

### ■ 교구청 사목방문 일정 안내

- 5월 27일(삼위일체 대축일) : 진보 본당 (견진성사)
- 6월 10일(연중 제10주일) : 영양 본당 (견진성사)

###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5월 28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황영애 안젤라(대전교구)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청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레지오 마리아 Pr. 간부 직책교육

- 일시 : 6월 2일(토) 10:00 - 14:4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Pr. 신임 서기, 회계 및 예비 간부
- 준비물 : 활동수첩, 목주, 필기도구, 월례회의 준비(해당자)
- 회비 : 1인 10,000원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 농은수련원 가족피정(캠핑)

- 주제 : 우하하! (우리가족 하!하!)
- 대상 :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20가족)
- 일시 : 6월 2일(토) 14:00 - 3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가족 3인 기준 15만원(숙식, 캠핑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 제2회 안동가톨릭미술가회전

- 일시 : 6월 12일(화) ~ 17일(주일)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갤러리5
- 오픈행사 : 6월 12일(화) 18:00

###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제49차 안동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 19:00 - 19일(주일)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가톨릭 신자(미혼여성), 문서 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 2018년 청소년 주일 담화

###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1,30)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교회는 올해,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느님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소중한 선물”인 청소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와 고유한 소명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1,30). 가브리엘 대천사가 갈릴래아 작은 마을의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하였던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관하여, 혹은 ‘부르심’에 관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주하는 각자의 두려움을 숙고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이 되며 무기력한 채로 지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걸림돌은 불신이 아닌 두려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안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 안에 갇혀 있지 말며,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근본적인 선함을 믿는 것이며, 어떠한 혼란의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끄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의혹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밀어닥칠 때는 **식별**이 필요합니다. ‘식별은 혼란스러운 우리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여 공정하고 현명하게 행동하게 해 주면서, 삶에서 자신의 성소를 찾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높은 데서의 부르심이며, 무엇보다도 ‘부르시는 타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열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 양심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욱 성실히 경청해야 하며, 동시에 바깥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창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제한되는 단절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진실하고 구체적인 체험들로 공유될 수 있도록, 현실의 사람들과 맺는 의미 있는 관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 서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듯,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젊은 마리아는 바로 그 젊음 때문에 구원 역사 안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았습니다. 것처럼 생명의 하느님께서는 젊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랑과, 불의하고 분열된 세상을 개선하여 이 땅에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정의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창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에 이제 청소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슬픔과 고통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순수한 젊음의 열정을 사회적 약자에게 한껏 쏟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귀한 공감과 동행의 길에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마리아에게 내리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그리하여 ‘알 수 없는 내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할 암울한 위협이 아닌, 여러분의 숭고한 소명으로 엮여 교회와 세상 안에서 서로에게 공명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이야기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 교회는 언제나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열렬히 지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2018년 청소년 주일은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청년 대회(주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와 2019년 1월에 파나마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주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를 준비하는 또 다른 발걸음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세상은 여러분 각자가 지상의 삶에서 받은 고유한 부르심에 대해 두려움을 이겨 내고, 마리아처럼, “네.” 하고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미래와 소명을 식별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잔치인 청년 대회에 여러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주교



## 희 망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갑자기 오른쪽 팔이 빠질 듯 아파왔다. 손목을 쓸 수가 없다. 왼손으로 마사지를 해도 소용없었다. 깊은 잠을 잘 수도, 손가락을 들 수도 없었다. 이렇게 지독한 통증은 처음이다.

병원 문을 열기 무섭게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차도가 없다. 테니스엘보라고 했다. 요즘은 컴퓨터 등 일상생활로 인해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 오후에 다시 한방진료와 별침까지 맞았다. 통증을 못 견뎌 꼬박 닳새 동안 양방과 한방을 오가며 치료받았다. 의사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무리한 근육을 쉬어 주라고 했다. 식사준비와 청소는 물론 작은 일상까지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낮지 않는 통증에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이였다.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 서울의 유명 병원을 찾아갔다. 거기서도 테니스 엘보라며 약과 보호대와 고주파치료를 처방해 주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니 시간이 지나면 곧 나을 것 같았다. 돌아오면서 한쪽 팔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하고 생각하자 쉽게 절망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1964년, 종신형 선고를 받고 절해의 고도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다. 감옥은 다리를 뺀고 제대로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았고, 구석에 찌그러진 양동이가 변기였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허락되었다.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 고문하고 폭력을 가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지역으로 쫓겨났다. 감옥살이 4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 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감옥살이 14년 되던 해에 큰딸이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왔다. 그는 아버지께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땀물이 찌들은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조각 하나를 큰딸에게 건네주었다. 종이에 '아즈위 Azwie(희망)'라고 써어 있었다.

그는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71세에 풀려났다. 그런 후 흑백분리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선된 뒤에는 자신을 박대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모두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들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심을 표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이다.

그 오랜 절망의 세월을 어떻게 견디어 내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희망)를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친정아버지는 약주 한잔 하시는 날이면 희망가를 자주 불렀다. 노래가사는 희망적이지 않지만 희망이란 단어 때문인지 좋아하셨다. 무신론자인 아버지께서 담도암으로 입원 후 어머니 도움으로 대세를 받았다. 그때부터 습관처럼 목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버지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물은 적이 있었다. 고통 없는 것과 하느님께 가는 것이라는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평소 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 매달리는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한쪽 팔이 아프다고 죽을 듯 절망했던 자신을 반성해본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이까짓 불편쯤이야. 절망이 어느새 희망으로 바뀐다.